



‘현실주의자의 심리학 산책’ 요헨 마이·다니엘 레티히 지음

생활 속 인간 심리에 관한 통찰 나와 타인 바로알기

‘스트라이샌드 효과’. 부정적인 정보 자체를 멀리하려 애쓰다가 그 정보를 훨씬 강하게 유포시키고 마는 현상을 가리키는 이 말은 특히 인터넷에서 잘 나타난다. 험담과 잡담을 억누르면 퍼가기와 인용을 통해 소문은 더욱 확산되고, 나쁜 어른이 난무하게 되는 꼴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현실이기도 하다.

유래는 영화배우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에서 비롯됐다. 그녀는 사진작가 케네스 아델만을 상대로 5000만 달러짜리 소송을 청구했다. 캘리포니아 해안을 항공촬영한 1만2000장의 사진 가운데 자신의 자택이 찍힌 사진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아델만은 해안이 침식되는 광경을 기록물로 남기려고 해변에 펼쳐진 광활한 풍경을 찍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을 계기로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려했던 여배우의 자택 사진은 오히려 인터넷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진이 됐고, 그녀는 소송에서도 패했다.

요헨 마이와 다니엘 레티히가 공동 집필한 ‘현실주의자의 심리학 산책’은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책이다. 인간이 언제나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의식적으로 내려며 양심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이성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의구심을 갖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책은 마음은 내게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나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말려들어가고 있는지, 소비문화는 나를 어떻게 현혹하는지, 정보화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등의 주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치는 현상들을 다양한 ‘효과’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저자들은 책에서 제시한 행동 심리 현상의 메카니즘을 이해한다면 살아가는 데 있어 나와 타인을 더 잘 이해하고,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책에서는 위급한 상황에 빠졌을 때 도움을 받을 가능성은 구경꾼의 수만큼 반비례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는 ‘방관자 효과’, 수많은 물건을 잠깐 동안 바라본 뒤 기억해야 하는 피실험자들이 7개의 물건까지 떠올릴 확률은 100%에 달하지만 여덟번째 물건부터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 ‘7의 현상’, 제품이 비쌀수록 기꺼이 구입하게 되는 ‘베블런 효과’ 등을 만날 수 있다.

책에 등장하는 효과는 모두 120여개. 다루는 아이템이 많다보니 깊이 있는 글쓰기를 만날 수는 없지만, 바로 내 이야기 같은 현실적인 소재들과 핵심을 짚는 유쾌한 글쓰기가 책 읽는 재미를 준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영화배우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에서 유래한 ‘스트라이샌드 효과’는 부정적인 정보 자체를 멀리하려 애쓰다 그 정보를 전보다 훨씬 강하게 유포시키고 마는 현상을 말한다.

한점 한점 미술품 수집 이야기

‘마침내 미술관’

안병광 지음

국내 대표 미술품 컬렉터가 수집에 얹힌 이야기를 잔잔히 풀어쓴 ‘마침내 미술관’이 나왔다.

저자는 1980년대 중반부터 미술품 수집을 시작한 후 이종섭의 ‘황소’와 특별한 인연을 맺으면서 본격적인 수집가의 길로 들어선 안병광(유니온 약품 회장)씨다.

책에는 이종섭의 ‘환희’와 ‘과수원의 가족과 아이들’, 박수근의 ‘첫 먹이는 여인’, 김기창의 ‘예수의 생애’, 임직순의 ‘소녀’, 이인성의 ‘남산병원 수술실’ 등 내로라하는 국내 작가들의



CEO가 된 저자의 자전적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특히 안씨가 서울시 유형문화재 26호로 흥선대원군의 별장으로 쓰였던 석과정을 경매로 구입한 후 7년을 투자해 복원하고 30년 동안 한점 한점 사모았던 그림들을 내걸 서울미술관을 개관한 이야기는 눈길을 끈다.

〈북스코프·1만8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남도 한 소작농이 겪은 수난과 항거

‘자랏골의 비가’

송기숙 지음

1977년 출간 후 시대를 넘어 민중문학의 대표작으로 자리잡은 송기숙 장편소설 ‘자랏골의 비가’가 재출간됐다. 35년만에 출간된 이번 개정판은 옛 표기를 바로잡고 표지와 디자인 등을 새롭게 했다.

‘자랏골 비가’는 1918년부터 한국전쟁, 4·19혁명을 관통하며 남도 벽지의 산골마을에서 벌어지는 소작농들의 수난과 물불, 항거를 그려낸 작품. 전라도 벽지 ‘자랏골’ 가진 것 없고, 힘든 생활이지만 서로 의지하며 대대로 어울려 사는 주민들을 분노에



빠트리는 건 지역 제일의 유지 이양문 일가다. 자랏골 최고 명당 자리에 자기 어머니의 묘를 이장하려는 이양

문과 그에 반대하는 마을 이장 종수와 선한이 등 마을 사람들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송씨는 작가의 말에서 “세상은 변했지만 소설에 그려진 많은 이들의 고통과 가난, 민족의 비극같은 것들은 그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조금씩 다른 모습일지라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적었다. 〈창비·1만3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고대철학부터 현대철학까지... 전환점의 역사

‘철학의 전환점’

최재식 외 지음

파르메니데스부터 푸코까지 서양의 대표 철학자들을 만날 수 있는 책 ‘철학의 전환점-터닝 포인트로 재구성한 서양 철학의 역사’가 나왔다.

김영균(청주대 교수·고대 그리스 철학 전공), 박승억(숙명여대 교수·현대 독일 철학 전공)씨 등 대학에서 철학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서양철학 전공자들의 학문 공동체 ‘수선철학회’ 22명이 집필에 참여한 이 책은 고대 그리스 파르메니데스의 자연철학으로부터 현대 영미 철학의 심리철학적 논쟁에 이르기까지 서양철학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망라하고 있다.

저자들은 인간 이상의 개화, 새로운 세계로의 모험, 철학의 끝없는 모색 등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고대·



중세 철학과 근대 철학, 현대철학을 소개하고 있다.

책은 유명한 ‘악법도 법이다’라는 논쟁을 이끌었던 소크라테스와 시몬볼복종의 문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근대 철학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던 데카르트의 인식론적 전환, 도덕적 의무와 최대 행복 사이에서 고민했던 칸트와 공리주의의 대립, ‘인간’에게서 길을 찾았던 마르크스의 사회철학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 시간과 생명에 대한 통찰과 생각거리를 던져준 베르그손의 생명 철학, 현대미술을 통해 살펴본 칸딘스키의 예술철학, 푸코의 역사 인식론, 대중문화를 둘러싼 논쟁등도 살펴본다. 〈프로네시스·3만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수 한수... 바둑에 버무린 셀러리맨

‘미생-아직 살아있지 못한 자’ 1·2

윤태호 지음

영화로도 만들어져 화제가 됐던 ‘이끼’ 등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광주 출신 작가 윤태호가 신작 만화 ‘미생-아직 살아있지 못한 자’(1·2)를 펴냈다. 올 1월부터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만화 세상’에 연재하고 있는 작품으로 ‘회사원과 바둑’이라는 두가지 소재를 엮어 이야기를 풀어냈다.

한국기원 연구생 출신인 주인공 장그래는 프로기사만을 목표로 살아왔지만 결국 입단에 실패하고 좌절에 빠진다. 바쁘게 돌아가는 종합상사의 입단 사원이 된 장그래는 상사, 동료들의 도움을 받고 바둑으로 길러진 승부사적 기질을 발휘하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 늘 총혈된 눈으로 일에 몰두하는 오과장, 합리



적인 사고의 소유자 김대리, 장그래와 함께 입단으로 들어온 안영이·장백기·한석을 등 등장인물들이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나간다.

바둑에서는 두 집을 만들어야 ‘완생(完生)’이라 말한다. 작품 제목 ‘미생(未生)’은 바둑에서 아직 살아 있지 못한 말을 뜻하는 것으로 저자는 사회라는 바둑판에서 두 집을 짓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한 수 한 수 돌을 놓으며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바둑전문 기자인 박지문씨가 조훈현 9단이 네웨이 평 9단을 꺾고 한국 바둑 역사상 최초로 세계 챔피언에 올랐던 1989년 응씨배 결승 5번기 5국을 해설한 기보도 실려 있다. 〈위즈덤하우스·각권 1만1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도시에 맞는 문화의 색을 답아라

‘문화 그리고 도시’

류재한 지음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공연중심도시, 디자인 도시, 창의도시...

저마다 이름은 달라도 이들 도시에겐 공통점이 있다. 문화가 ‘얼굴’인 도시라는 것이다. “21세기에는 문화의 주도권을 잡는 나라가 세계인의 감성을 지배할 것”이라는 미래 사회학자 앨빈 토플러의 예언처럼 문화는 도시경쟁력이자 국가경쟁력으로 떠올랐다.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전문가 류재한 교수(전남대 불문학과)가 최근 문화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은 ‘문화 그리고 도시’(Drawing Culture for Cities)를 펴냈다. 책에서 그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모든 도시들의 발전모델이며 한 도시의 미래를



설계한다면 먼저 문화를 ‘그리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시만의 고유한 문화의 캔버스를 선택하고 그 캔버스 위에 도시에 맞는 문화의 색으로 그려 나가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책에는 박물관과 미술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종로구 센터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프랑스 푸튀루와 광주 등 문화도시의 예컨대로 선정된 국내외 사례가 소개돼 있다.

류 교수는 프랑스 파리 소르본느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전남대 유라시아 연구소장, 2011~2012 아시아 문화포럼 집행위원장, 유럽문화예술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도서출판 이산·1만7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신간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치열한 논리 싸움을 바탕으로 확정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미국의 정치사, 사회사는 물론이고 세계의 상황까지 들여다본 책이다. 변호사인 저자 L.레너드 케스터는 종교·사상·양심의 문제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법집,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둘러싼 결정을 등의 카테고리 통해 흑인을 노예를 바라보는 비뚤어진 시선을 그대로 담아낸 스코트 대 샌포드 판결, 범죄 용의자 미란다를 둘러싼 판결을 비롯, 31개의 사례를 실감나게 소개하고 있다.

〈현암사·1만8000원〉

▲물리학 시트콤=‘수학 시트콤’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과학 재담꾼 크리스토프 드뢰서가 이번에는 기상천외한 물리학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왔다. 비엔나 소시지의 열구리가 항상 세로로 터지는 이유,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더 젊어지는 이유, 똥똥한 사람이 더 빨리 미끄러지는 이유, 50%의 확률로 총에 맞는 데도 결코 죽지 않는 이유 등 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 있는 14가지 물리학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냈다.

〈해나무·1만5000원〉

▲여행길에 만난 국립 박물관=신문사 문화부 기자 출신으로 현재 미술사를 공부하고 있는 윤민용씨가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 전국의 12개 국립박물관을 답사하고 펴낸 책이다. 저자는 경주·광주·김해·공주·대구·광주·제주·청주 박물관 등의 다양한 소장품



뿐 아니라 각 박물관 주변 일대의 유적까지 직접 발로 뚫으며 전문가의 시각으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풀빛·1만8000원〉

▲공자는 가난하지 않았다=‘세속의 눈으로 파헤친 고전의 사생활’이라는 부제가 달린 책으로 맹자, 공자 등 동양 고대 유명 인사의 경제 생활을 파헤쳤다. 저자 리카이저우는 사료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글을 많이 보유했던 맹자는 연봉이 100억원이었고, 유방 생활을 즐겼던 이백은 묘비명 한편에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는 점 등 흥미로운 사실들을 만날 수 있다. 〈예배·1만8000원〉

▲미식이=중국 쑤저우 지방의 요리를 둘러싸고 국영 식당과 미식가가 펼치는 대결을 그린 중국 작가 투윈윈의 소설이다. ‘맛의 욕망’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갈등하는 두 사람의 삶을 통해 음식 이야기 뿐 아니라 새로운 중국 사회도 함께 들여다본다. 영어·불어·일어 등으로 번역돼 출간됐으며 미식이 천국인 프랑스에서만 10만부가 팔렸다.

〈글누림·1만2000원〉

▲배흘림 기둥의 고백-옛 건축의 창조와 진화=‘건축,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보다’의 저자 서현씨가 이전에 출간했던 ‘사라진 건축의 그림자’를 일반인들의 눈에 맞춰 쉽게 풀어 다시 펴낸 책이다. 저자는 전통 건축의 일반적 가치에 날카로운 메시지를 들어냈다.

〈휴형출판·1만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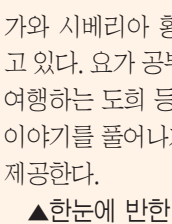
▲홍내정이 곰 파랑이가 좋!=성장기 아이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양식인 따라하기의 의미를 알려주는 그림책이다. 몸집이 커마마하게 크지만 귀엽고 사랑스러운 곰 파랑이와 아주 작고 귀여운 황금새의 우정과 다툼, 그리고 화해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지양어린이·1만원〉

▲우리들의 특별한 버스=호주 출신 그림책 작가인 밥 그레이엄 작품으로 2012 호주 아동문학상 그림책 부문 대상 수상작이다. 낡고 오래된 고물버스를 특별한 버스로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에 대해 말하고 있다. 어느날 스텔라의 집 앞에서 버려진 현대의 버스가 발견되고, 스텔라와 이웃

사람들은 버스 안을 깨끗이 치우고 그들만의 공간으로 꾸민다. 〈시공주니어·1만1500원〉

▲노빈손의 산티산티 인도견문록=세계역사 탐험에 나서고 있는 노빈손이 이번에는 인도에 상륙, 타지마할 등 인도의 신비한 세계문화 유산과 역사를 탐구한다. 16세기 무굴제국의



화장터에서 깨어난 노빈손. 사람들은 그를 부활한 전설의 고행자라며 극진히 대접한다. 하지만 노빈손을 시키하는 세력의 음모로 모래 폭풍에 휩쓸려 버려진듯 못한 불가촉천민으로 추락하고 만다.

〈뜨인돌·9500원〉

▲초등세계문화 100배 즐기기=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티베트, 케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11개국

과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요가 공부를 하는 이모를 만나 인도를 여행하는 도희 등 각 나라마다 주인공이 등장,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나라별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니어RHK·1만3000원〉

▲한눈에 보는 민화 미술관=상상력, 해학, 예술미, 색채감 등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는 민화에 알기쉽게 풀어쓴 해설서다. 까치 호랑이, 산수화, 설화 그림 등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민화 121점을 통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미술 관련 어린이책을 주로 집필해온 장세현씨가 썼다. 〈시계절·1만5500원〉

어린이 책꽂이